

전남도, 과학계와 손잡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총력

한국광학회·한국과총 광전연합과 함께 '구축 심포지엄' 개최

전라남도가 과학계와 손잡고 기초과학연구와 첨단산업의 총아로 평가받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광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와 함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6일까지 3일간 열리는 한국광학회 주최 '2022 하계 학술대

회(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특별세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전남도가 2023년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조속한 구축과 국가적 지원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좌장을 맡은 석희용 광주과학기술원(GIST) 물리광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기초과학 연구를 선도하고 레이저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용 전남도 에너지공대지원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과학기술과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전문인력 양성, 레이저 연구기관 유치, 레이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초고

출력 및 고에너지 레이저를 기반으로 기초과학 뿐만 아니라 반도체·광학소자·나노부품 초미세 가공, 우주·항공용 금속 개발, 레이저 무기 및 의료장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첨단시설이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건립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전남에 유치하면, 에너지 신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우주항공·신소재 등

레이저와 관련한 국가 첨단산업 선점이 기대된다. 특히 90% 이상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레이저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관련 기업을 전남에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과학계·산업계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대학·연구기관·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전문가 포럼을 지속해서 개최했다.

앞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국가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정

부의 예비타당성 심사에 대비해 중앙부처, 국회, 전문가 그룹 등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GIST,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센터, 광주 광산업 단지가 연계된 전남은 레이저 연구와 신산업 육성 최적지"라며 "에너지, 반도체, 국방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핵심 원천기술을 선도하도록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반드시 전남에 유치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서용운기자

광주시, 미래차 부품기업 역량강화 지원

광주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차 전환을 위한 지역 부품기업 역량 강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첫번째 사업으로 5일 빛그린산단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와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 구축된 부품 시험 첨단장비 170여종에 대한 활용·기업지원 설명회 및 장비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장비투어에는 지역 자동차 부품 1·2차 협력사 협의회 소속 기업 78개사가 참여해 (재)광주그린카진흥원과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첨단장비에 대한 세부 자원과 장비 활용방법, 기업지원 사항을 소개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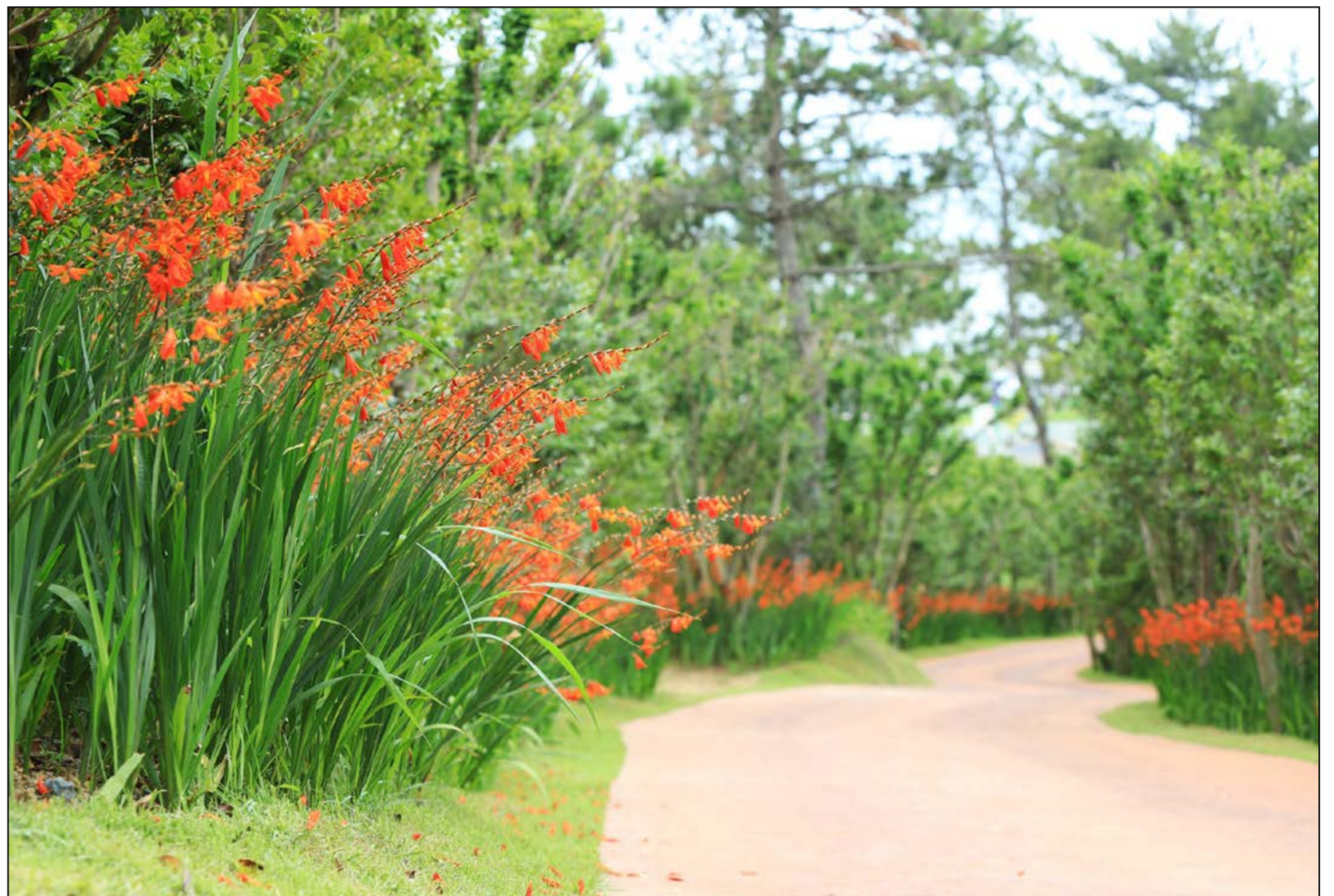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는 지역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 고도화를 위해 총 3030억원을 투입해 기업지원 시설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선도기술지원센터 등을 건립해 조성했으며, 클러스터 내에 첨단장비 166종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부품인증센터는 친환경차 인증수요와 종합적 안전·인증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총 390억원을 투입해 차량 배터리 안정성, 차량 충돌·충격 안전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첨단장비 26종을 구축하는 중이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장비는 현재 운용 중이고, 나머지 장비는 내년 6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는 미래차 전환 중소 부품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일에는 그린카진흥원 대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미래차 전환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부터는 미래차 전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업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박준열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지역 부품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미래차 전환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미래차 전환 컨설팅과 역량 강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기자



신안군 '섬 크로코스미아 꽃 축제' 개최

신안군은 압해읍 송공산에 위치한 천사섬분재공원에서 '크로코스미아 꽃 축제'를 8-24일 개최한다. 천사섬분재공원은 3.5ha의 애기동백 숲이 조성돼 있으며, 애기동백 관람로를 따라 식재된 200만 본의 크로코스미아에는 4천만 송이의 꽃이 만개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신안군 제공

함평 Hamgyeong

함평 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